**소리가 촉감이 될 때**

최희승 (큐레이터)

작은 동그라미들이 와글와글 소란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고요하다. 마치 넉넉한 이불같이 하나의 면으로 이루어져 한 몸을 이루는 것 같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서로 다르다. 친근하고 촉각적이면서도 포근한 감각이 김은정의 작업에서는 동시에 일어나곤 한다. 가장 최근의 작업인 < Wall Sculpture> (2024~) 시리즈는 각각 조금씩 다른 형태와 컬러, 질감, 패턴을 지닌 원형 100여 개가 입자와 같이 모여서 큰 패브릭 부조를 이루고 있으며 그것이 공중에 커브를 이루거나 벽면에 평평하게 걸려 설치의 형식을 지니게 된다. 마치 단체사진같이 모인 동그라미들에게는 특별한 기능이 없고, 소리가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만질 수 없으나 역설적이게도 많은 소리, 촉감, 감정들을 담고 있다. 작업의 초기부터 최근까지 김은정은 줄곧 패브릭을 주요한 소재로 하여 입체, 설치 형식의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작가 스스로 중요하다고 밝힌 '스침'의 감각을 자세하게 말해보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될 것이다.

김은정에게는 행위이자 감각인 '건조한 스침'은 그의 작업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표현으로 보인다. '스침'에 대한 언급은 작가의 말을 인용한 것이고 건조하다고 불러보는 것은 필자의 해석임을 밝힌다. 그는 상처를 덮거나 구조의 보강을 위해 만들어진 거즈나 바삭거리는 마른 천이 피부 위를 스치고 지나가는 감각에 매료되어 작업을 통해 그것을 반복적으로 떠올리고 추적하면서 구현하고 있다고 말한다. 가벼운 천이 팔이나 다리를 타고 스쳐가는 감각은 무엇에 비유해야 가장 적합할까? 간지러운 느낌일 수도 있을 것이고 부드럽게 쓰다듬어지는, 깃털이 몸을 타고 무해하게 흘러가는 기분일 수도 있겠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매우 촉각적인 감각이며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김은정은 이 스침에 대해 타인의 호흡이 청각보다 먼저 자신의 신체에 닿을 때의 느낌과 비슷하다고 묘사하고 있다. 작가에게는 다가온 외부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최초의 감각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조한 스침은 어떤 방식으로 도출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김은정이 형태나 조형을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 눈여겨볼 수 있을 것이다. 미공개 작업인 <Naturah> (2022)는 그의 작업이 전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즉흥성과 퍼포머티브한 측면을 잘 드러내고 있다. 1인용 무대나 돔(dome), 배출이나 흡수를 위한 파이프의 일부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작품은 2년이라는 제작 기간을 거쳐 완성된 이후 작가의 퍼포먼스를 실연하는 무대가 되었다. 표면을 이루는 실타래의 은은한 감각, 내장이나 탯줄 같은 형태에 집중하면서 작가는 그것이 공간과 만나고 하나씩 이웃하며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만들어내는 느낌, 분위기, 형태, 감정 등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제작하였다. 선택한 요소와 감각이 다수로 증식하며 서로를 뒷받침하거나 균형을 이루고 서서히 강화되는 지점에 대해 그는 논리가 아닌 직관으로써 운용하며 관람자 또한 감각적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부분이 과정 속에 내재하

여 있다.

한편 옷이라는 형식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김은정 작업의 특징 중 하나이다. 개별적으로 옷을 디자인하고 착용하는 경우보다 설치, 입체 작품과 한 묶음처럼 제작하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천으로 감싸이며 옷을 입으며 피부로 만나게 되는 촉감, 평생을 살아가며 필수적인 옷의 기능과 그것이 주로 천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에 작가는 주목하였다. 마치 피부의 연장과 같이 연약한 날 것의 몸을 감싸고 보호하는 천이자, 이것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닿는 옷의 감각이 그에게 중요한 인식으로 작용한 것 같다. 옷을 입고 벗는 행위와 팔을 끼워 넣고 다리를 집어넣으며 천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 옷이 몸에 붙는 과정이 그의 퍼포머티브함과 이어지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손으로 제작한 자신의 작품을 타인의 감각하게 하는 촉각 또한 신체적인 공통감과 소통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패브릭의 촉감이 신체와 연결되는 중간지대에 옷이라는 매체가 있다.

이와 같은 작가의 개념과 형식, 제작 방식, 지향점을 통해 가장 중요하게 짚어보아야 하는 부분은 청각과 촉각이 연결되는 지점이다. 다시 말해 김은정에게 청각과 촉각은 멀리 떨어진 감각이 아니라 서로 가까이 맞붙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앞서 언급했던 가벼운 천이 피부를 스치는 감각에 대하여 그가 소리보다 먼저 타자의 존재나 상황을 인지하는 공기 소리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작업 역시 고요하지만 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매달린 천이 주변의 움직임에 따라 흔들리며 바람을 가르는 아주 미세한 소리, 관람객이 작품 주변을 거닐거나 만질 때 발생하는 사각이는 소리가 김은정의 세계에서는 존재를 밝히는 중요한 촉각이 될 수 있다. 이 작지만 크게 들리는 소리들을 작가는 부드러운 패브릭에 빗대어 형태를 부여하고 색과 질감을 덧입혀 안전한 상태로 만들면서 나의 감각이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보인다. 마치 옷을 만들듯이 말이다.

위와 관련하여 김은정의 작업에서 매우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동그라미가 다글다글 모여 있는 형태에 대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완벽하지 않은 동그라미의 정체는 무엇인가. 양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피를 넘지 않는 선에서, 세포의 뭉치나 지방종처럼 혼자 존재하지 않는, 때로는 벽면이나 천장, 바닥을 감싸며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 같은 이 패턴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가.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얻은 가장 선명한 단서는 그것이 소리를 안전하게 획득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초기작 <Alabaster Chamber> (2010)에서 동그라미들은 작은 부스 안의 흡음판처럼 외부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소리가 곧바로 도달하지 않도록, 불안한 상태를 완화시켜 주는 완충재의 형태와 기능을 내포한 상징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업에 대한 많은 해석 중 일부이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작가는 자신의 손으로 인간적인 동그라미를 반복적으로 만들고, 착용하기도 하고, 각각의 색과 패턴을 입히면서 촉감으로 다가온 소리에 대하여 곱씹고 소화하며 해석해 내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김은정의 작품은 소리와 촉감을 연결하고 재료와 신체를 연결시킨다. 그가

작업에서 조형을 구축하며 사용하고 있는 즉흥적인 방식은 살아가며 매 순간 갱신되고 있는 끊임없이 귀를 타고 흘러 들어오는 많은 자극들과 이를 통한 세상에 대한 인식, 손이나 피부를 통해 감각할 수 있는 신체를 통한 즉각적인 이해와 맞닿아 있다. 그리고 작업을 손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행위는 자신이 지닌 특수한 감각을 타인과 나눌 수 있는 솔직한 언어이자 남들에게 제안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자 계기로 만들어가는 행위로 바라볼 수 있다. 설치미술이 지닌 공간과 조우하는 특성, 환경에 반응하는 속성을 끌어들이거나 퍼포머티브하고 자기 자신이 등장하는 측면들은 향후 적극적으로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때로는 포근하고 따뜻한 패브릭처럼 다른 한편에서는 갑작스럽거나 공포스럽게 다가온 소리와 같이, 익숙한 옷이나 붕대처럼 회복하는 감각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김은정의 감각들을 쫓아가 보아도 좋을 것이다. 다른 감각은 분명 다른 세계로 인도하게 될 테니.

2025 서울문화재단 장애예술창작활성화사업 비평가 매칭